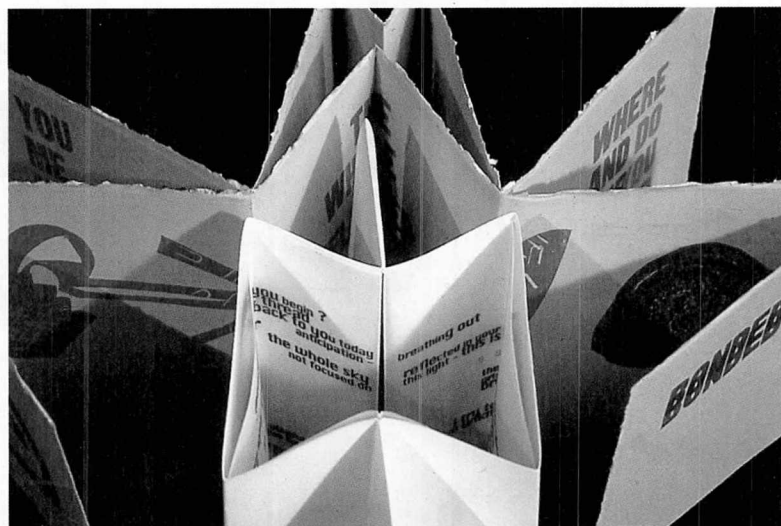


책의 공간 속에서 탄생하는 은유의 이미지들

영국 북 아트의 이모저모



· 〈City Babies〉(Ioanna Papadupoulou, 1997)
도시에서 나고 자란 세대의 사고와 생활을 주제로 3권의 책을 다시 대형의 금속커버로 함께 묶어냈다. 크기가 다른 페이지들의 조합, 3권의 책의 페이지들의 조합에 따라 보여지는 내용이 달라진다. 실크스크린하는 이미지나 텍스트도 즉발적으로 모여져 중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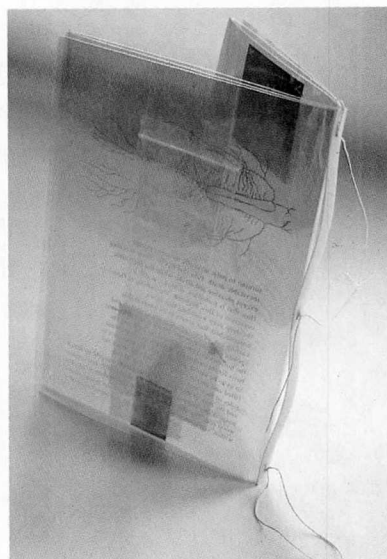
· 〈BONDED〉(Les Bicknell)
접는 방식의 제본은 책의 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어낸다. 레스는 책의 내용과 구조의 조화를 통해 총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다. 그의 작업방식은 다작과 실험성이며 이를 통해 북아트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



· 〈Who Will Be It?〉(Susan Johanknecht, 1996)
가위·바위·보 놀이의 개념으로 세상의 대응관계를 해석한 듯하다. 상자 안에 12장의 사진카드와 10장의 텍스트 카드가 포장돼 있고, 보는 사람이 임의로 이미지와 텍스트의 대응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 〈Who Will Be It?〉의 CD롬 버전으로서 전자매체를 통해 이미지와 텍스트의 '동시(同時)' 인지를 실험하기도 한다.



· 〈Emissions〉(Katharine Meynell · Susan Johanknecht, 1992)
캐서린 메이넬이 내용을 쓰고 수잔 요하넥트가 이미지와 디자인을 했다. 투명한 폴리에스테르를 재료로 사용하여 실크스크린으로 인쇄되어, 책 전체의 겹쳐진 이미지를 볼 수 있다.



· 〈Derby Publication〉
더비대학에서 출판한 아티스트북 콜렉션으로 여러가지 내용을 각기 적합한 형태의 책들로 표현되어 모아졌다. 팬(fan) 형식, 접이식, 리본 형태 등 다양한 제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단순명쾌한 아름다움의 정점

중세주의자 윌리엄 모리스의 '이상적인 책'

단순함과 명쾌함. 영국의 시인이자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예술운동가, 사회주의 사상가로서 세기말의 가열한 삶을 살았던 윌리엄 모리스(1834~1896)가 책 디자인에서 추구했던 지향점이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과는 별도로 내 인생을 지배한 감정은 현대문명에 대한 혐오”라고 말했듯 모리스는 반자연적, 반인간적인 것에 반발하며 “인간이 본래 지닌 인간성이 갖는 제품을 만드는 즐거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리스의 인간성 회복의 이상은 중세 지상낙원을 꿈꾸며 쓴 시 <지상낙원>에서, 직접 건축설계한 그의 신혼집 <레드하우스>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책’이 지닌 생활예술성에 열정을 다했던 그의 미장본들에서 현실화돼 나타난다.

1891년 모리스는 출판사 켈름스코트를 설립해 그가 꿈꾸는 ‘이상적인 책’을 만들어간다. 중세 영국 최대시인으로 꼽히는 제프리 초서(1340?~1400)의 <캔터베리 이야기>에 크게 자극을 받았던 모리스는 “나는 죽을 때까지 <초서작품집>을 출간하길 염원한다”고 할 만큼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에 몰입했다. 켈름스코트에서 간행한 모리스의 대표적인 장정본 역시 <초서작품집>이다.

모리스는 이상적인 책의 조건으로 종이, 활자, 제본을 꼽는다. 우선, 펄프로 만든 대

량생산의 조악한 종이는 찢어지기 쉽고, 인쇄면이 고르지 못하며 활자를 선명하게 부각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또

한 읽기 쉽고 아름다운 활자를 탐구한 끝에 로만체의 골든타입을 창안했고, 고딕체의



윌리엄 모리스

트로이 타입과 초서타입을 고안했다. 읽기 쉬운 활자는 곧 읽기 편한 편집조판을 뒷받침하며 인쇄면에 여백과 균형을 유지해 아름다움을 창출한다. 마지막

으로 내구력 있는 제본 역시 중요하게 여겼다. 표지는 외견상 화려함을 피하고, 간소하면서 긴장감을 주는 기죽을 사용했고, 글자를 직접 조각해 새겨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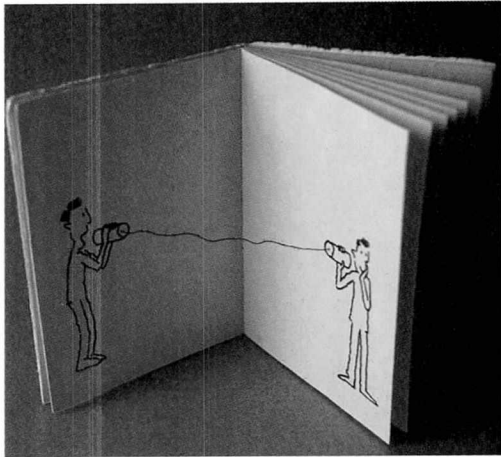
“아름다운 집과 아름다운 책은 모든 인간 사회가 지녀야 할 즐거운 목표”라 했던 모리스의 이상은 대량생산과 속도의 극점을 달리고 있는 오늘날 더욱 우뚝 선다. 중세주의자 모리스가 꿈꾸며 영국사회의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자 했던 ‘이상적인 책’이 그리운 시대다. 모리스 삶의 총체적인 모습은 박홍규 교수(영남대 법학과)의 <윌리엄 모리스의 생애와 사상>(개마고원)에서 더불어 느낄 수 있다. <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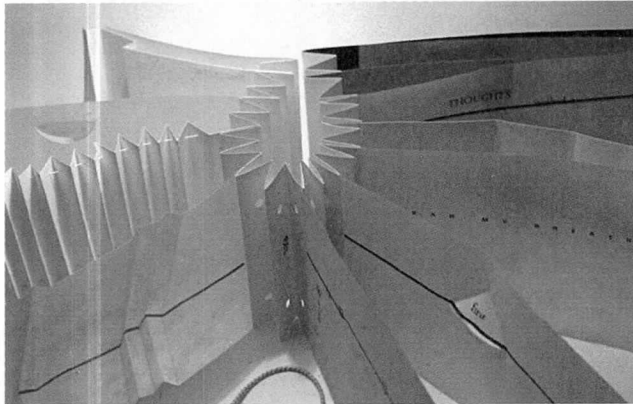
<초서작품집>. 모리스가 직접 디자인한 활자와 조각, 평생의 벗이었던 화가 반 존스의 삽화로 완성됐다.



트로이 타입과 초서타입을 고안했다. 읽기 쉬운 활자는 곧 읽기 편한 편집조판을 뒷받침하며 인쇄면에 여백과 균형을 유지해 아름다움을 창출한다. 마지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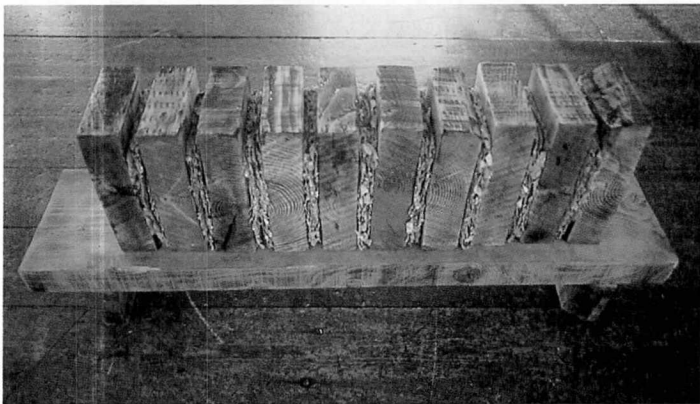
· <a piece of string>(차정인) 일상의 사소한 것인 한가닥의 실에서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책의 구조를 통해 표현한다. 한가닥의 실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각기 다른 이미지를 연결하고 이를 따라가며 회상과 상상의 공간을 경험한다.



· 'The Thin Blue line'(Deb Rindle) 염서: 이 책의 각 페이지는 푸른 선이 거주하는 개성있는 구조물이며 공간들이다. 책의 개념과 디자인에 대한 독창적인 접근방식을 실험한다.



· <Re-defining>(Karen Bleiz, 1997) 금속상자와 자석으로 이뤄진 책 인쇄되어 변할 수 없는 텍스트 위에 수백개의 자석조각에 인쇄된 다른 단어를 보는 사람이 임의로 덧붙여 re-defining을 경험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 환경과 전통적 책의 관계를 실험하고 있다.



· <Log Book>(Les Bicknell) 레스는 조각형식이나 설치를 통해 책의 구조와 개념을 탐구한다. 일련의 통나무책들은 책의 물성(物性)과 그 형태·구조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이슨의 삶과 죽음>(모리스 지음, 1895)



<콜리지 선시집>(1896)



<쿠스탄 황제와 외국이야기>(모리스 옮김, 1894)